

안정에 대한 확인

- 버냉키 미 연준의장의 의회발언으로 출구전략과 관련한 우려는 크게 희석되었음. 출구전략 시행의 지가 분명함에도 정책의 시행에 있어 신중한 대응이 확인되었기 때문
- 전고점을 넘어서 사상최고가를 회복한 미국 주식시장에 이어 글로벌 금융시장은 차례로 출구전략의 혼란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 한국시장은 선진시장과 이머징 시장의 중간 속도로 회복 중
- 글로벌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우려, 중국 경제상황에 대한 부담 등 여타 변수의 영향이 이어지고 있으나 정책변수의 혼란이 해소되면서 시장의 회복기조는 더욱 뚜렷해 질 것으로 기대됨

버냉키 미연준의장의 의회 발언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성은 한층 더해지는 모습이다. 신중한 기존의 행보를 재확인 했기 때문이다. 자산매입규모를 줄이는 것을 출구전략의 출발로 인식한다면, 버냉키 의장의 발언을 통해 금년 내 출구전략의 시행 가능성이 보다 분명해 졌다. 그러나 동시에 자산매입규모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우려하는 자산매입의 중단, 금리의 상승, 연준 자산의 매각 등 이후 일련의 조치들은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상황을 감안하며 진행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해 졌다.

출구전략을 시사하는 발언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급격한 자금이동 가능성에 패닉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모습이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올해 말 자산매입규모의 축소를 시작으로 탄력적인 출구전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내년 중에는 자산매입의 중단이, 2015년 이후에는 금리의 상승이 시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간표를 받아들게 되었다. 또한 실업률,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탄력적이고 여유로운 대응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도 분명해졌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반응도 대부분 긍정적이다. 전일 한국 주식시장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버냉키 의장의 발언 이전 큰 폭의 상승을 겪었던 점을 감안하면 역시 긍정적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하반기의 출발은 출구전략을 둘러싼 여러 의구심 속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의 회복국면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물론 선진국과 이머징 마켓의 반응 속도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출구전략에 대한 우려속에 선진시장에 비해 격렬한 조정을 겪었던 이머징 마켓의 경우는 회복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S&P 500 등 대표지수 모두가 전고점을 넘어 사상최고가를 이어가고 있는데 반해 한국을 포함한 이머징 마켓 주기는 여전히 고점과 거리가 상당한 모습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한국시장의 경우 이머징 마켓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초기 반응에 있어서도 브라질, 인도와 동남아 시장 등에 비해 훨씬 혼란의 크기가 작았던 한국시장은 회복구간에서도 상대적으로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주식시장 뿐 아니라 채권, 외환시장에서도 공히 관찰되는 모습이다. 최근 재개되고 있는 외국인의 주식 매수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한국, 대만 시장 등에서 우선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여부, 불안정한 중국 경제상황 등 여타 변수의 부담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지만 정책에 따른 혼란이 진정됨에 따라 시장의 회복기조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trategist 이영원

02) 3787-25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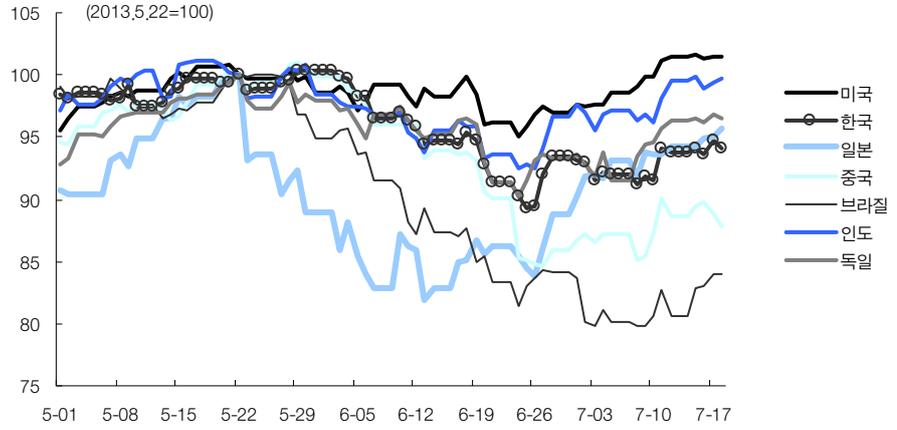
youngwon.lee@hmcib.com

Jr. Analyst 김정호

02) 3787-23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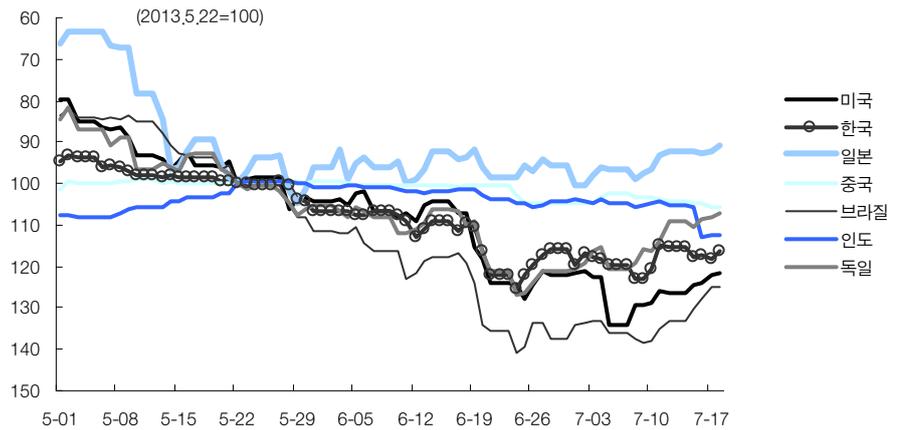
hmcstar@hmcib.com

〈그림1〉 5월 이후 주요국 대표 주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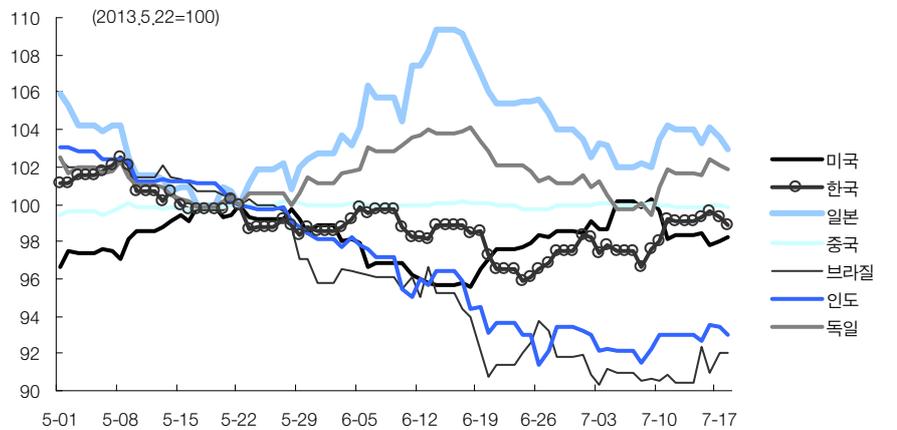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HMC투자증권

〈그림2〉 5월 이후 주요국 국채금리(10년) 추이 (5월22일을 100으로 계산)



자료: Bloomberg, HMC투자증권

〈그림3〉 5월 이후 주요국 환율 추이(미국은 달러 지수, 나머지는 대달러 환율로 계산)



자료: Bloomberg, HMC투자증권

〈그림4〉 한국, 미국시장 외국인 순매수



자료: Bloomberg, HMC투자증권

-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